

# 작년 어업 생산량 역대 최대 금징어는 41년만에 최대폭 ↓

### 통계청, 2018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발표

어업 생산량 379만t · 생산액 8조6420억...사상 최대 오징어 생산량, 절반으로 뚝...수온 ↑ · 어선 남획 탓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와 해외 수역에서의 원양 어업 생산량 호조로 어업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고등어, 가다랑어 등의 어획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중국 어선들의 남획, 수온 상승 등으로 오징어 생산량은 1977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어업 생산량은 379만1000t(톤)으로 1년 전(372만500t)보다 1.8%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수역을 조업 구역으로 하는 원양 어업 생산량이 49만3000t으로 1년 전(44만6000t)보다 10.6% 늘어났다. 태평양 해역 어장이 인근 수역으로 확대돼 가다랑어, 꽂치,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의 조업이 호조를 보인 덕이다. 지난해 가다랑어 어획량은 26만7000t으로 원양 어업 품종 중 가장 많았다.

연·근해(일반해면) 어업 생산량도 전년(92만7000t) 대비 9.2% 증가한 101만3000t으로 3년 만에 100만t대를 회복했다. 대형선망 어업의 휴어기 확대로 고등어류, 전갱이류의 자원량이 늘어 조업이 확대됐다. 잠조기의 경우 금어기가 설정, 어장 환경이 개선됐으며 바지락 폐사량도 줄었다. 주요 품종 중에선 고등어류(21만6000t), 멸치(18만9000t) 등의 어획량이 많았다.

다만 오징어(살오징어) 생산량은 1988년(4만9525t)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인 4만6274t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6.8% 떨어진 것으로 감소 폭으로 따지면 1977년(-59.9%) 이후 최대다. 기후 변화로 등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해서 감소해왔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도 오징어 생산량을 낮춰 오징어 가격을 올리는 데 기여해왔다.

총생산량 225만1000t으로 가장 큰 비중(59.4%)을 차지하고 있는 전해

양식 어업은 1년 전(231만6000t)보다 2.8% 감소했다. 안정성 문제로 납치류 소비가 줄고 식용 미역의 과다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태풍, 고수온 등 영향에 시설 면적이 줄고 양식 환경 악화로 굴류와 홍합류의 양식 불량도 축소됐다. 품종별로 보면 다시마류(57만3000t), 김류(56만8000t), 미역류(51만6000t), 굴류(30만3000t) 등 순으로 높았다.

하천 어업, 저수지, 댐 등 내수면에서의 어업 생산량도 전년(3만6000t) 대비 2.9% 감소한 3만5000t을 기록했다. 내수면 어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뱀장어의 치어 채포가 부진했고 이에 판매금액이 늘어 소비도 축소됐다. 염분수 유입으로 재첩류 폐사량이 늘어난 영향도 더해졌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전라남도(184만2000t · 전체의 55.9%)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해냈다. 그 뒤를 경상남도(59만t), 부산광역시(32만8000t), 충청남도(14만6000t) 등이 이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부산(28만5000t)에서 가장 많았고 천해양식 어업 생산량은 전남(167만7000t)에서 가장 높았다.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판매했거나 판매 평가가격으로 환산한 총액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지난해 어업 생산금액은 1년 전(8조5669억원)보다 0.9% 오른 8조6420억원이다. 연·근해 어업(30%), 원양 어업(2.8%), 내수면 어업(0.5%)에서 모두 올랐지만 전체 양식어업에서만 2.7% 감소했다. 주요 품목인 굴류, 홍합류, 미역류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납치류, 흰다리새우, 전복류 등의 판매가격이 하락한 이유에서다.

이번 통계는 잠정치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확정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음성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모션베드 모델들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빌드 박람회 한샘 전시장에서 (주)한샘의 '스마트 모션베드' 음성인식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54만명 혜택

###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정부가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 기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시행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54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는 2월 말 종료 예정이어서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이달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후 채무를 소각기로 했으며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면제 조치를 하는 등 총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캠코와 지원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정책수혜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수요자는 약 4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반드시 2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 주유소 기름값 16주 만에 소폭 상승... "강보합 전망"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및 경유가격이 16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당 0.2원 상승한 1342.9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0.5원 오른 1242.2원으로 16주 만에 소폭 상승했다.

상표별로 휘발유 기준 최저가는 일말주유소로 1당 1315.2원을 기록했다. 최고가는 SK에너지로 1358.7원에 판매됐다.

경유 기준으로 일말주유소는 1당 1215.3원에 판매되며 최저가를, SK에너지는 1257.3원에 판매되며 최고가를 시켰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1당 2.5원 내렸음에도 1445.2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0.9원 올랐음에도 1308.0원에 판매됐다. 평균 공금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1당 1248.1원으로 전주 대비 11.1원 상승했고 경유는 1161.3원으로 9.9원 올랐다.

가장 비싸게 공급한 정유사는 휘발유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전주보다 13.4원 상승한 1266.0원에 공급했다. 최저가 정유사는 전주보다 3.6원 상승한 1231.9원에 공급한 SK에너지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 정상회담의 에너지시장 지속 공조 합의, 리비아 생산차질 지속 등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 3월 보금자리론 금리 0.05%p ↓... 최저 연 2.8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0.05%p포인트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i-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i-

보금자리론'은 연 2.90%(만기 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약정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3.0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너나은 보금자리론'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전자약정 등으로 진행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뉴시스

## 난닝 Lotto 제 847회차 당첨결과 (2019년 2월 23일 추첨)

12 16 26 28 30 42 + 22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8	2,520,846,657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40	84,028,22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443	1,375,82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4,324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57,205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정일)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